

STRATEGY 21

통권37호 Vol.18, No.2, Autumn 2015

미래 대한민국 해군력 역할과 발전

최정현* **

I. 서론

II. 대한민국 해군 발전 경과

1. 해군력 역할 측면 : 3축 역할로
2. 전략개념 측면 : 복합위협 대응으로
3. 전력건설 측면 : 자립적·입체적·중급규모 해군으로
4. 해군력 발전 영향요인 평가

III. 미래 전략환경 및 위협전망

1. 전 지구적 차원 : 기후변화
2. 지역적 차원 : 역내 전략적 불안정성 심화
3. 한반도 차원 : 해양을 통한 북한 위협

IV. 미래 한국해군의 역할

1. 국가안보 3대 역할
2. 국가발전 3대 역할
3. 미래 전장 역할 : 합동전장 주도군

V. 미래 해군력 발전방향

1. 해군력 건설방향
2. 해군력 운용방향

VI. 결론

* 해군소령,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해양전략개념담당

**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든 평가, 판단 및 분석은 대한민국 군 또는 해군의 공식적이거나 일반적인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저자 개인의 학문적 견해임.

I. 서론

대한민국 해군은 1945년 창군 이래, 갖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 해군의 역사는 분단이전을 거슬러 최초의 근대식 군함 ‘광무(光武)’가 있었던 대한제국과 거북선을 보유한 조선, 진포대첩의 고려, 청해진의 통일신라와 그 이전으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이를 차치하고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군만을 고려할 때 우리 해군의 현대사는 70년이라는 다소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에 커다란 변화와 엄청난 질적·양적 발전을 이룩했다. 예컨대, 스스로의 힘으로 구입한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과 미 해군으로부터 넘겨받은 몇척의 소형함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제 그간 가쁘게 지나온 날들을 살피고 작금의 상황을 주시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살피기 위해 전략적 심호흡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상이한 현존 패권과 도전국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강국이었던 상황을 처음 맞는 상황에서 우리는 요동치는 파도와 소용돌이의 중앙에 있다. 이곳은 경솔하게 대처될 경우 하사라도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전략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곳이다.¹⁾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면서도 분단된 지 70년이나 지나 남북 간 온갖 이질성, 불신과 반목을 극복하고 통일된 한반도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이면서도 실행가능하며 성공을 약속하는 치밀한 계획을 구상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전략적 격변기라 칭하기에 과함이 없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격동기에 어떠한 전략개념에 따라 무엇을 구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해군은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북한 위협으로부터 해적 대응과 인도적지원/재난구호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한 위협들을 효과적으로 억지·예방·대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즉, 전·평시 어떠한 전략적 이점(strategic advantage)을 창출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 효과(strategic effect)를 지향할 것인가. 이를 위해 무엇(전략·전력)을 선택하고 가용한 자원을 어떠한 방향으로 선별적으로 집중할 것인가.

1) Barry R. Posen, *Inadvertent Escalation : Conventional War and Nuclear Risks*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pp.17-19.

Ⅱ. 대한민국 해군 발전경과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에 앞서 지난 70년간 우리 해군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자. 군사분야의 발전과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특정 조직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도 있고, 매우 중요한 사건 또는 주요 전략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본 논문은 군사분야에서 ‘전략’에 논의의 중심을 두므로 전략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즉, 70년간에 걸친 우리 해군의 현대적 발전을 해군력 역할(Purpose), 전략개념(Ways), 전력 건설(Means)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해군력 역할 측면 : 3방향 역할로

현대의 해군은 융통성, 기동성, 민첩성, 탄력성, 공격성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전력들을 통해 매우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이러한 특성들로부터 얻어진 해군력의 유용성으로 인해 해군력의 장점이자 군사적 효용성은 ‘기여자·구현자(enabler)’로 표현되곤 한다.²⁾ 해군이 수행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정리될 수 있겠으나 현대적 해군이 수행하는 역할을 군사적 역할, 외교적 역할, 그리고 경찰적 역할로 구분할 때 이 세 가지 역할을 토대로 지난 70년간 우리 해군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자.

해군은 육·해·공 3군 중 가장 먼저 자주적으로 설치된 정규군의 정체성을 가졌으나 광복 직후부터 1970년 초반까지는 그 임무와 운용영역에서 매우 제한적 역할로 해군력을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즉, 초창기 해군력의 열악함과 1만 명도 못 미치는 소규모 병력 운용, 일제 강점기 시 우리 민족을 해양인력에서 배제시킨 일본의 점령정책, 분단 후 국내정치의 불안정 상황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군 본연의 임무보다는 오히려 경찰적 역할에 가까운 임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분단 직후에는 남측 지역에서의 폭동과 소요 등

2) Colin S. Gray, *The Leverage of Sea Power : The Strategic Advantages of Navies in War* (New York : The Free Press, 1992).

정치적 불안과 체제 전복의 상시 위협을 극복하고 국가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해양공간에서의 광범한 통제보다는 지상공간에서의 정치적 소요 제거와 이를 위한 지원 역할이 중요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나라에 속했던 대한민국이 1960년대 말부터 놀라운 경제성장을 통해 국부를 축적하며 그에 맞게 해군력도 증강되면서 점차 해군력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기존까지 우세했던 경찰적 성격의 해군력 운용뿐만 아니라 해군이 지닌 본연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우리의 국력신장과 확장된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 인접 수역과 동북아뿐 아니라 전 세계로까지 해군력 운용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평시의 군사·비군사 위협에 대한 해군력 운용뿐 아니라 적극적인 해군력 현시와 군사외교 및 연합훈련, 다국적 훈련 및 작전 참가 등을 통해 외교적 역할까지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불과 70년 만에 우리 해군은 해군력 운용의 세 가지 역할인 경찰적, 군사적, 외교적 역할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2. 전략개념 측면 : 복합 위협 대응으로

광복 이후 초기 우리 해군은 구체적인 해양전략 내지는 해군전략 등 실질적으로 우리 고유의 전략개념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군사전략적 토대가 미흡하였으므로 주로 육군중심의 군사전략을 해양공간에서 지원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점차 해군력 운용과 해양전략 사상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서구의 선진 전략개념을 도입,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전략개념을 개발하게 되었다.³⁾ 우리 해군의 전략개념은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첫째, 군사전략적 수준에서 보면 대북 위주의 전략뿐 아니라 역내 전략적 불안정성이 초래하는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포함하는 전략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군사전략적 차원의 전략적 논의를 통해 ‘국가안보’ 영역에 속하는 도전

3) 해군의 대표적인 해양전략 연구 매체인 『해양전략』은 1981년 4월 제1호가 인쇄·배부되었고 이를 매개로 해양전략적 담론과 신기술 및 무기체계 연구 및 소개가 해군 내에서 널리 확산되었다.

과제들이 다루어 졌다. 둘째, 광의의 국가전략적 차원에서는 전통적인 국가행위자에 의해 초래되는 군사적 위협을 위주로 하는 전략으로부터 주로 비국가 행위자로부터 초래되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다루는 방향으로 위협대상의 스펙트럼이 확장되었다. 이는 지상·항공전략과는 다른 해양전략의 포괄적인 전략범위에서 기인한 특수성이기도 한 바, 종래의 ‘국가안보’의 영역뿐 아니라 ‘국가발전’ 역시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주요 관심의 주영역이 되었다. 셋째, 전략의 목적 측면에서는 전쟁을 상정하여 전승을 보장하기 위한 ‘억제전략’ 위주로부터 전쟁을 예방하는 ‘억제전략’의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었다.

3. 전력건설 측면 : 자립적·입체적·중급규모 해군으로

광복 후 지금까지 해군의 전력건설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첫째는 미국 의존형 해군에서 자주적 해군으로 발전하였다. 창군 초기와 6·25전쟁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PCEC, LSM, LSMR 등 소협함정으로부터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DE, APD, DD에 이르기까지 우리 해군전력의 상당수는 미국으로부터 구입 또는 공여받은 함정이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최초의 국산 고속정 ‘학생’을 시작으로 다수의 고속정을 건조하기 시작한 이래 PCC, MHC, FF 등 중·소규모의 전투함을 자체 기술로 건조하게 되었고 이후 DDH, AOE, MSH, LST, ASR, LPH, DDG, KSS 까지 전투지원함을 포함하여 첨단화·대형화·다양화된 함정을 독자적으로 건조·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게 되었다.⁴⁾

둘째, 1차원적 평면 해군에서 5차원 입체적 해군으로 발전하였다. 분단 이후와 6·25전쟁 이후 초창기의 전력건설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소형 함정들에 의존하였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 북한이 해상으로부터의 간첩 침투를 본격화하게 되고 침투전력도 초기의 10톤 급에서 1970년대 초에는 점차 40~50톤 급으로 대형화되면서 우리의 해대간 작전에도 변화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변화된 북한 해상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970년대 초반 고속정 필요성

4) 대한민국해군, 『바다로 세계로 : 사진으로 본 해군 50년사(1945~1995)』 (해군본부 : 수경문화사, 1995), pp.23-30, pp.80-90, pp.185-210.

이 급증하였고 다수의 한국형 고속정들이 건조·확보되었다.

이때까지 해양을 통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해상(surface)’이라는 평면적 공간으로 비교적 단순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는 북한이 다수의 잠수함(정)을 본격적으로 보유하게 됨에 따라 대잠전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초계함과 호위함 등 건조가 추진되었다. 북한 위협이 해상에서 수중으로 입체화되면서, 수중 위협에 최적의 대응을 위한 전력 구비를 위해 우리도 1980년대부터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장보고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중 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1990년대 초부터는 LYNX, P-3C, UH-60 등 기종을 중심으로 초계기·대잠헬기·다기능헬기 등 고정익 전투기를 제외하고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항공기를 확보함으로써 해군의 작전영역이 해상으로부터 수중, 공중으로 확장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이 부각되었고 첨단 전자장비 위주로 아축 전력이 증강되면서 기존 3차원 해군영역에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포함하여 비로소 5차원에서의 해군력 운용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

셋째, 전력규모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해군은 그로브 박사(Grove)가 제시한 9개 등급의 해군중 보안대 규모(8등급)의 해군에서 중간급 지역적 세력투사에 준하는 등급(4.5등급)의 해군으로, 또는 초소(超小)형 해군(small-small navy)에서 대소(大小)형(big-small navy) 해군 내지 중형해군 규모로 성장했다.⁵⁾ 1960년대부터 불붙기 시작한 장기 고속성장은 급기야 국방비 수준에서도 한국군을 세계 10위권에 오르게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비 규모는 국가경제가 이미 상당수준에 도달했던 1980년대 중반과 비교해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1985년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전 세계 군비지출의 0.7%에 불과했으나 2014년도에는 2.1%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규모를 타국과 비교하면 1985년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과 뉴질랜드의 국방비를 합친 규모와 같은 규모였으나 2014년에는 이들 국가에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가 합쳐진 것만큼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⁶⁾

5) Eric Grove, *The Future of Seapower* (London : Routledge, 1990); Geoffrey Till, *Seapower : A Guid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ondon : Frank Cass, 2004), pp.113-115에서 재인용. Michael McDevitt, "The Republic of Korea Navy : a 'big' small navy," in eds., Michael Mulqueen, Denpraj Samders, and Ian Speller, *Small Navies : Strategy and Policy for Small Navies in War and Peace* (Burlington : Ashgate, 2014), pp.152-155. .

4. 해군력 발전 영향요인 평가

앞서 언급한 해군발전 과정에는 많은 요인들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보다도 지정학적(geopolitical)·지전략적(geostrategic) 동인으로 보는데 큰 무리가 없다. 광복 후 우리는 3년만에 정치적·지리적으로 분단되는 비극을 맞았고 그로 말미암아 한반도는 공산세계와 자유진영의 대표적인 이념대결의 최전선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북쪽의 대륙과 단절되면서 기능적으로는 완전한 섬나라가 되었다.⁷⁾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우리는 완전한 해양국가가 될 수 있었으나 지전략적 상황에 의해 군사측면에서는 해양성이 매우 위축되었다. 넓게는 세계전략적 차원의 동서(東西)간 이념대결, 좁게는 남·북 간 대치로 해군력의 유용성과 역할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억제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세계전략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고려라는 큰 틀에 편입되어 미국의 군사전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소련의 대륙적 성격을 지닌 공산권 군사력의 침범인 북한의 육상 위협을 한반도에서 억제하기 위해 대칭적 수단인 육군 중심의 군사력이 발전되었다. 한반도에서 육군 위주의 군 구조 및 전략개념은 북한의 전면전 도발 억제와 전면전 발발 시 북한의 주전력인 지상군을 막기 위해 우리 역시 육군을 군사력의 주력으로 하는 전략적 선택이 반영된 구조다. 비록 한국군이 육군 위주로 운용됨으로써 해군과 공군에 대한 충분한 전략적 배비가 부족할 지라도 유사시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동맹구조로 인해 대한민국 자체의 취약점이 자유진영의 세계전략 틀 내에서 만회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

이로써, 육·해·공군력의 균형적 발전이 제한되고 해군과 공군은 북한의 지상군 위협과 전면전을 막기 위한 지원전력의 성격을 가지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어찌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다수의 지상병력을 DMZ 인근에 배치하여 대규모 기습을 위한 성공적 조건을 상시화 함으로써 쌍방 간 마지노선(Magnot Line)을 구축토록 강요함으로써 군사적 대비태세의 양상을 1차대전

6) The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6, 2000, 2001, 2015*.

7) 이러한 인식은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등과 같은 해양관련 인사 뿐 아니라, 대륙전략 사상을 지닌 인사들조차도 널리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분단 및 6·25전쟁 당시 한국군을 지휘했던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발견되어진다. 백선엽,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구상』 (서울 : 국방군사편연구소, 2003) 참고.

에서 유럽전선의 참호전(trench warfare)과 유사한 모습으로 형성토록 한 것이다.⁸⁾

결국, 한국군 구조를 현저히 육군 중심으로 구조화하도록 유인함으로써 북한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해·공군력의 열세로 인한 전략적 취약점이 줄어든 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현상유지적이며 방어지향적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공세가 아닌 방어를 위주로 한 군사전력이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⁹⁾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의 군사력이 점차 쇠약해 가는 한편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동반되는 전략적 위기감으로 인해 우리 해군력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여건 역시 동시에 성숙되었다. 그러던 중, 북한의 도발이 기존의 육상 위주로부터 1990년대부터는 해상 위주로 전이하게 되면서 해상을 통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고려한 해군 전력건설이 해군 전략 수립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북한이 해상을 통한 도발로 전이한 데에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역지사지(易地思之)적 관점을 통해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와의 국력격차가 심해지면서 기존과 같이 육상을 통한 군사도발은 자칫 북한이 원치 않는 전면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더 이상 매력적인 대안이 아니다. 대신, 해상을 통한 도발은 첫째 해상에서의 도발이 육상으로의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낮으며, 둘째, 그간 우리가 육군 위주의 군사력을 건설·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해군력 증강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제한되어 해상도발 성공가능성이 그 어느 도발유형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 셋째, 해상에서의 작전에 대해 해군 만이 아니라 합참, 국방부 등 상부의 타군 출신 지휘관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일사불란한 대처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점, 넷째, NLL, 접적해역 어로보호 등 북한이 도발을 자행할 정치군사적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해양에서의 도발은 도발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효용성이 가장 높은 대안이라 하겠다.

8) Richard K. Betts, *Surprise Attack : Lessons for Defense Planning*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4), pp.273-279.

9) Edward N. Luttwak, *Strategy : The Logic of War and Peace*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202.

Ⅲ. 미래 전략환경 및 위협 전망

우리의 미래 해양전략·해군전략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논의하기에 앞서 작금의 전략환경이 거시적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자. 이를 통해 비로소 미래 우리가 당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해양위협의 대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복잡한 해양 환경과 다양한 위협 속에서 우리가 어떤 측면을 보다 비중있게 고려할 것인지 판단하고 전략 수립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미래 우리가 당면할 전략환경을 전 지구적(global) 차원, 지역적 차원, 한반도 차원의 세가지 수준에서 살펴보자.

1. 전 지구적 차원 : 기후변화와 복합적 해양위협

전 지구적 차원에서 미래 인류의 해양안보뿐 아니라 안보 자체에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은 기후변화이다. 기후변화는 기존의 다양한 안보위협 요인들을 증폭·심화(threat multiplier)시키는 촉매로 작용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들의 생존과 안정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에 이르기까지 취약성이 증대된다. 특히, 기후변화는 식량과 에너지, 수자원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대규모의 난민과 인구이동을 유발하게 된다. 기후변화는 미래의 안보문제와 위협을 형성·촉진할 뿐 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러한 위협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후변화는 이렇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테러리즘, 종족분쟁, 전염병, 내전 등 다른 문제와 결부되어 전 지구적 안보와 개인의 안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¹⁰⁾

기후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해양에서 그 영향력이 가장 심화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가속화 될수록 수많은 수중 동·식물의 멸종이 야기되는데 종(種)의 소멸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공간이 바로 해양이다.¹¹⁾ 기후변화는 인구

10) Jeffrey Mazo, *Climate Conflict : How global warming threatens security and what to do about it* (London : Routledge, 2010), pp.94-104.

11) 해양공간 중 지구 생태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산호초 지대다. 이곳은 지구상 거의 대부분의 어족자원이 탄생하는 해양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동추세와 연계되어 해양으로부터의 위협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인구의 도시이동이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 천만 이상이 거주하는 메가시티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2045년에는 세계 인구의 약 70% 가량이 도시에 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메가시티의 대부분은 해양과 밀접한 도시들이다. 현재 UN 회원국의 3/4이 해안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고 전 세계 인구의 80%가 육지로부터 10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¹²⁾ 이는 해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급증하여 해양과 관련한 비군사적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는 보다 많은 인구가 해군의 작전범위 내에 거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 온난화는 특히 해안선을 보유한 국가들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해수면이 상승되어 연해지역 국가들의 국토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국토면적이 작은 국가의 경우 생존공간까지 심대하게 위협을 받게 된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쓰나미나 해일의 영향에도 보다 취약해진다. 현재 해수면 상승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의 3/4 가량이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해수면 상승은 해안선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산정하는 영해 기준선에 대한 혼동이 발생되어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될 수도 있다.¹³⁾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해양에서 생성되는 열대성저기압이 더욱 강해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¹⁴⁾ 한 예로, 오늘날 해양플랜트를 통한 석유생산은 전 세계 석유 공급의 30%를 해결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해안선 인근의 지역과 인구 뿐 아니라 상시 국제적인 석유의 공급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후변화 외에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불안정 국가 증가, 급속한 세계화 진전에 따른 해상·항공 운송의 급증, 화석연료의 감소와 북극해 및 심해저 등 새롭게 등장한 전략적 지대의 중요성 증가, 증폭되는 자연재해 등 쟁점들이 지구적 차원의 안보위협을 심화시키는 동인이 되고 있다.

12) Ministry of Defence, *British Maritime Doctrine*, Joint Doctrine Publication 0-10, August 2011, pp.1-6.

13) 최근 해수면 상승으로 남태평양의 카터렛제도가 올해 완전히 수몰되어 진정한 최초의 기후난민이 발생한다. 박영숙·계룡 글렌, 『유엔미래보고서 2045』 (서울 : 교보문고, 2015), pp.219-220.

14) 1971년부터 2010년까지 한반도에 내습한 태풍의 평균중심기압은 1971년부터 1986년 기간에는 971.7 hPa이었으나 2000년 이후로는 967.6 hPa로 낮아졌고 내습하는 태풍의 최대풍속도 30.7m/s에서 32.7m/s로 강해졌다. 강기룡, “태풍의 한반도 위협과 대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 제7차 해양비전포럼(2014년 7월 4일).

이로 인해, 해적행위와 해상테러리즘, 해상을 통한 다양한 불법행위 등 비군사적 위협과 대규모 해양재난 및 해난사고 대응 등 전통적인 국가간의 갈등과 위협 뿐 아니라 다양한 비국가·초국가위협으로까지 확장·심화되는 위협 스펙트럼에 적시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다재다능한 해군력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2. 지역적 차원 : 역내 전략적 불안정성 심화

지역 차원에서는 정치적·군사적 측면의 위협요인이 증대·심화되면서 역내 전체의 전략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질서 유지국(world's sheriff)으로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 하락과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역내 안보불안감이 증폭되고 상호 적대감이 증가되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영유권 분쟁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잠재하며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¹⁵⁾

동아시아는 특히 1970년대부터 수십 년간 진행되며 형성된 지역적 차원의 군비통제 및 신뢰구축 경험을 보유하지 못한데다 상호간 깊은 역사 인식 차이와 청산되지 않은 과거역사로 인한 증오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타 지역과 비교 시 해양에서 대규모 군사충돌 발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단, 세계 주요 국가 간 첨예한 군사적 갈등은 지난 10년간 거의 드물었고 강대국 간 전쟁도 제2차 대전 종전 이후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과거의 전통적 해상결전 방식의 해전은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한 데다 각국의 위협회피 성향이 갈수록 증대하며 민주적 가치의 확산과 국가간 고도의 상호 의존 등으로 대규모 해상결전 발생할 가능성이 억제될 요인도 병존한다. 그러나 향후 15년은 그동안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해 왔던 패권국가 미국의 현존 질서 유지 노력에 대해 중국의 현상변경 의지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강대국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된다.¹⁶⁾

미국과 중국의 투입 가능한 상대적 해군력만을 고려하면 2030년경에는

15) The U.S.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February 2015), pp.23-25.

16) Jonathan Holslag, *Trapped Giant : China's Military Rise* (London : Routledge, 2010), pp. 29-54, Muthiah Alagappa ed., *Asian Security Order :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pp.96-98, pp.144-145.

아·태지역에서의 양국 전력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¹⁷⁾ 즉,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로의 전략적 재균형 정책(Asian pivot, strategic rebalancing)에 따라 아태 지역에 배치될 미 해군 전체전력의 60% 중 실제 위협발생 시 즉각 투입 가능한 전력을 2/3 수준으로 볼 때 이 전력은 전체 미 해군 전력의 40%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국은 전 해군전력이 아태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전략적 주도권에서 오는 이점을 고려할 때 실제 중국 해군력이 미국의 40%에 달하는 시점은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해군력이 거의 대등한 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미국 대비 잠수함전력과 사이버전, 탄도미사일 전력을 중심으로 미국의 우세를 위협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2030년 이후에는 항모전투단을 비롯한 수상전투단 역량에서도 거의 대등한 전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 2009년부터 발전중인 공해전투(ASB : AirSea Battle) 개념의 명칭을 ‘글로벌코먼즈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AM-GC :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으로 대체하면서 좀 더 포괄적인 전략·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¹⁸⁾ 한편,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¹⁹⁾ 등 공세적 해양통제(Offensive Sea Control)²⁰⁾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패권 도전세력의 비대칭적 도전에 대해 차기항모 및 주요 전투함에 레일건, 레이저 등 미래형 함포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역비대칭 수단을 통해 미국 해군력 강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²¹⁾ 요컨대, 기존의 수세적이고 방어적 개념의 해전 수행 개념을 보다 공세화하면서 현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시화하고 있다.

17) “Watch Out, America : China Might Have 415 Warships by 2030,” *The National Interest*, May 27, 2015. <http://www.nationalinterest.org> (검색일 : 2015년 6월 1일)

18) Aaron L. Friedberg, *Beyond Air-Sea Battle : The Debate Over US Military Strategy in Asia* (London : Routledge, 2014), pp.47-58. 명칭변경은 <http://news.usni.org/2015/01/20/> 참조(검색일 : 2015년 1월22일).

19) 올해 1월 17일 미 수상해군협회(Surface Navy Association)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미 수상전력사령관 Thomas Rowden 중장 등 3명의 제독이 발표. 미 해군의 공세적 작전개념으로 반접근 지역거부(A2/AD : Anti-Access/Area Denial)를 추구하는 적 영토 인근에서 Hunter Killer SAG(Surface Action Group)로 불리는 공격력이 극대화된 전력(수단)으로 공세적 전투수행(방법)을 통해 미 전력의 해양통제와 전력투사 여건을 확보(목표)하는 작전개념임. Vadm. Thomas Rowden et.al., “Distributed Lethality,” *Proceedings*, January 2015, pp.18-23.

20) Bryan Clark, *Commanding the Seas : A Plan to Reinvigorate U.S. Navy Surface Warfare*,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 2014.

21) Ronald O’rouke, Navy Shipboard Lasers for Surface, Air, and Missile Defense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2, 2015.

한반도가 과거 냉전시절 공산권과 자유 진영 간의 이념대결의 최전선이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세계 패권을 두고 대립하는 국면이 본격적으로 심화될 경우 한반도는 다시 세계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 된다. 비록 중국과 미국뿐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중국이 동북아 내지 서태평양 해역에서 지역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일본과 경쟁할 경우 일본과 중국 간 군사적 충돌이 해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²²⁾ 아시아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중국과 일본이 동시에 강대국인 환경에 처해 있다. 2030년까지는 중국과 일본 간에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으나 2030년 무렵부터는 중국과 신흥 도전국으로 성장하게 될 인도 간 정치·군사적 갈등 역시 증가하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

3. 한반도 차원 : 해양을 통한 북한 위협

북한의 군사위협은 2030년까지는 핵을 비롯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전략적 비대칭 수단을 통한 위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급속한 기술력 확산과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기반의 습득·도입·모방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우리가 가진 대북 기술적 우위가 점차 감소할 수 있다.²³⁾ 또한, 북한이 일부 분야에서의 집중적 군사현대화로 재래식 위협도 동반적으로 증대되는 등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이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해군은 건조한지 40년이 지난 함정이 절대다수를 구성하는 해군의 전반적인 함정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갈수록 함정 해난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신형함정 건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항구, 군수지원 시설 등 전반적인 해군력 현대화에 수반되는 연계 비용이 매우 클 것이므로 현저한 규모의 해상전력 증강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북한은 앞으로 노후함정의 퇴역 시기를 늦추는 한편 함정의 활동 범위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군력을 운용하게 될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 해군 대비 비대칭적 이점을 가질 수 있는 특정 분야 내지 소수

22) William Choong, *The Ties That Divide : History, Honour, and Territory in Sino-Japanese Relations* (London : Routledge, 2014), pp.93-113.

23) Barry Buzan and Eric Herring, *The Arms Dynamic in World Politics* (Boulder, CO :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pp.29-31.

의 전력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약점을 극복하고 해상에서의 도발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전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최근 무인기를 통해 우리 안보를 위협한 사례를 볼 수 있듯이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현대식 무기체계를 선택적으로 개발·운용하면서 우리에게 미치는 군사적 도발 위협양상이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특히, 최근 북한은 미사일발사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개발, 신형 전투함 및 고속함정, 신형 고속어뢰 및 함포 등 현대적인 무기체계를 개발·운용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은 해상에서 우리가 월등한 전력우세를 통해 공세적인 해양통제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우리와의 국력차이가 더욱 심화되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지위가 향상되는 한편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어 외면적으로는 북한이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점차 감소하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 내부로부터 체제 붕괴의 위기가 급박히 전개되고 북한 지도부가 한국에 의해 흡수 통일되는 것보다는 무력도발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판단할 경우 계획 또는 우발적으로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IV. 미래 한국해군의 역할

해군의 역할은 전통적 역할과 비전통적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적 역할은 해군력이 사용되는 대상과 상황이 전통적인 국가이자 전형적인 해군력을 통한 경쟁과 대결 상황이다. 이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 클라우제비츠(Clauswitz)와 조미니(Jomini)가 강조했던 유형을 해상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연계시켰던 마한(Mahan)과 콜벳(Corbett) 등 해양전략사상가들이 제시한 역할이기도 하다.

한편, 비전통적 역할은 이러한 전통적 임무 또는 역할과는 달리 해적 대응, 해양에서의 조직범죄·밀수·밀입국·인신매매 등 불법행위, 재난대응과 인도적 지원(HA/DR :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등과 같이 위협의 성격이 비군사적 또는 초국가적이거나 낮은 수준의 해군력 사용과 관련된 역할이다. 전통적 역할이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바다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면 비전통적 역할은 국가안보 차원보다는 국가발전과 국제 해양협력에서 보다 확장된 범위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 한국해군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국가안보적 역할과 국가발전적 역할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1. 국가안보 3대 역할

먼저,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미래 우리 해군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첫째, 평화통일 견인군, 둘째, 해양주권 보호군, 셋째, 해양위협 억제군 으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정부가 본격적인 구상을 천명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우리 해군은 통일을 달성하기 까지 힘으로 국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뿐 아니라, 통일 단계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도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평화통일 견인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0년대 북한의 군사도발은 대부분 해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평시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결정적인 관건이 되므로 해군은 평화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을 보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한이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갈등과 위협의 수준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자 할 경우, 이를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합의와 조치는 해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서해는 남북 간 갈등과 반목의 상징이므로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군비통제나 신뢰구축의 가시적인 성과는 서해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비록 인류의 군비통제 역사를 살펴볼 때 해군의 군비통제 사례는 1920-30년대의 런던·워싱턴 군축조약 외 참고할 만한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성공적으로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²⁴⁾ 하지만, 한반도 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한반도의 ‘특수성’인 만큼 해상에서의 신뢰구축부터, 운용적 군비통제, 나아가 구조적 군비통제로까지 이어지면서 평화통일 논의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데 해군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여건이 조

24) Richard Fieldhouse ed., *Security At Sea : Naval Forces and Arms Control*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p.8-15.

성될 수 있다.

이외에 만약, 북한 정권 붕괴 등 급변사태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극대화될 경우에도 이러한 불안정성이 북한 외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해군은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북한이 보유한 다량의 WMD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거나 해상 등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어 극단적인 성향을 지닌 테러집단에게 유입되는 상황이다.²⁵⁾ 이 외에도 다수의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제3국으로 이동하거나 해상 난민이 되는 경우, 북한 지도부가 해상을 통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급변사태 시에도 한반도 전 해역에 걸친 안정적인 해양통제권 확보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사활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해군은 우리의 영토와 관할권 등 해양권익에 대해 점증하는 위협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하므로 ‘해양주권 보호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독도방어와 이어도 보호, 주변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 Economic Exclusive Zone) 경계획정 및 어업협정, 한일 공동개발구역 협정 등에 따라 우리의 국익이 달려있는 한반도 인근 해양은 현시대 우리의 정치외교적 최전선이다. 마지막으로, 군사 위협뿐 아니라 해적이나 해상을 통한 다양한 테러리즘, 해상재난과 오염, 각종 대규모 해상사고 등 해양에서의 위협은 해양에서 예방 또는 차단되어야 한다. 예방 및 차단이 불가피할 경우 국가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에 제압·제거되어야 한다. 이에, 해군에게는 해양에서 또는 해양으로부터의 다양한 위협들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해양위협 억제군’ 역할 역시 요구된다.

2. 국가발전 3대 역할

해군은 육군이나 공군과 달리 평시에도 우리 영토로부터 매우 먼 곳에서 군사력을 운용하므로 평시 군사력 운용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즉, 시·공간적으로 한정된 상황과 영역에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하는 육·공

25)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5* (June 2015), pp.11-12.

군과 달리 해군은 마한이 ‘바다의 고속도로’라고 표현한 해양 공간에서 평시·위기·전시를 불문하고 확장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육·해·공군 모두가 한반도에서 적의 위협에 대비해 국가보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한반도를 벗어나서도 동일하게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역할을 상시 수행하는 군은 해군이 유일하다.

이에 국가발전을 위한 역할은 육·공군과 대비되는 해군의 특수성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국가의 해양전략 수립이나 해군전략을 구상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러한 해군만이 가진 특수성과 고유성에 대해 타군이 자칫 이해하지 못하게 되거나 오해할 수 있다.

육군의 경우 ‘전략’에 대한 개념적 범위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위협, 특히 ‘전면전’ 내지 ‘국가총력전’ 양상을 띠므로 해군이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는 전략의 영역이 매우 광범하고 포괄적이어서 해군 특성을 반영한 전략의 구상과 실천에 대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육군중심의 전략적 시각으로 해군전략을 바라보면 세계를 주무대로 하는 광범위한 운용영역과 위협대상, 군사력 운용방법이 도무지 육군중심의 합동성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동성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평시의 국가이익 보호’ 측면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야 하겠고, 좀 더 포괄적인 전략적 사고가 타군으로부터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해군은 국가 경제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경제발전 호위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 간 대규모 전쟁발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 시대의 국가 간 전쟁은 어쩌면 평시의 ‘무역과 통상’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서 석유를 비롯한 전략자원과 필수 원자재,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의 99.8%가 해상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통과한다는 현실, 그리고 이러한 해상교역의 규모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아·태 지역이 전 세계의 경제 중심축이 된 현재 우리에게 말라카 해협, 호르무즈 해협, 대만 해협 등 주요 통과목(Choke-point) 들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한다.

해군이 국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호위하는 역할은 고도로 글로벌화된 현 시대에 해적과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해양교통로 폐쇄를 초래하는 국가 간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으로 인해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향후 아시아의 급성장하는 경제규모, 부족한 해상치안 역량, 감소하는 미국의 역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990년대 말 이후 잠시 줄어들었던 해적행위가 동남

아에서 급격히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²⁶⁾

지난 1960년대 말부터 놀랍게 성장한 우리 경제는 21세기 이후에는 세계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국익이 연결되도록 영향을 미쳤다. 세종·다산·장보고 기지 등 극지기지에서의 탐사와 연구 등 국익증진 노력, 해적과 테러리즘으로부터 핵심해로와 통항선박의 증가, 원양어선의 수산활동 영역 확대 등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우리나라의 이익이 존재하는 모든 해양에서 해군의 증가된 활동이 요구된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함정을 주기적으로 현시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위협과 잠재적인 적으로부터 위해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고 위협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위협을 제거 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군은 해양을 기반으로 확산되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 ‘범세계적 해양국익 보호군’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고 국격이 향상되어 국제사회에서의 위치가 전반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이르면서 우리 군의 역할도 우리만을 위한 군이 아니라 역내안정과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²⁷⁾ 군사적 쟁점에 대해 세계 각국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군사·비군사, 국가·초국가 위협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협 스펙트럼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군사력의 융통성, 적응성, 탄력성이 매우 중요하다.

해군은 이러한 특성을 골고루 갖춘 전력이므로 세계평화를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폭넓게 협력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군이 된다. 무엇보다도 세계평화에 영향을 미칠 위협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이 매우 어렵다. 여기에 전 세계에 어디든지 군사력을 투입할 능력을 요구하므로 해군이 갖춘 고도의 기동성과 민첩성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결국, 미래의 우리 해군력은 국가 간, 전 세계 차원의 협력과 평화를 위해 ‘세계평화 기여군’이라는 역할 수행에 최적화된 군이어야 한다.

26) 우리 해상수송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동남아 항로에서 올해 상반기 106건의 해적행위가 발생하여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ReCAAP,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 (January-June 2015)" (<http://www.recaap.org>) (검색일 : 2015년 7월 27일).

27) 2015년 8월 기준 현재 대한민국은 개인파병과 부대파병(한빛, 청해, 동명, 아크부대)을 합하여 전 세계 13개국에 1,400여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있다.

3. 미래 전장 역할 : 합동전장 주도군

미래 우리 해군이 담당해야 할 이러한 역할들을 고려할 때, 평시·위기·전시와 군사·비군사, 국가·초국가, 전통·비전통 위협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서 확장된 합동전장이 요구된다. 해군은 이 확장된 합동전장에서 주도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 위협환경은 합동전장의 성격에 일대 변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간 합동전장을 주도했던 육군으로부터 해·공군의 주 활동영역인 해양과 공중 전장이 합동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은 비단 지정학적 변화뿐 아니라 통일한국의 위협축을 기존의 북방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남방으로 향하게 하면서 한반도의 주전장의 변화를 초래한다.²⁸⁾ 통일된 한국은 북한 위협이 소멸되므로 통일한국의 위협축이 본격적으로 바다를 향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통일한국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리적 공간은 해양영역이 된다. 해양은 임진왜란이나 구한말의 경우와 같이 외부의 위협이 한반도에 도착하는 데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물리적 통과공간이 된다. 이에 따라 바다에서의 전략이 성공하고 바다에서 적을 막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영토를 보전하고 국가의 안보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군사 위협뿐 아니라 비군사 위협 역시 해양영역을 통해 한반도에 도착하는 상황이 되므로 해양공간은 후방으로 인식되기보다 외부의 군사·비군사 위협을 막는 한반도 안보의 최전선으로 인식된다. 결국, 해양은 전 전장공간에서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 내지는 준(準) 충분조건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사전략 수립의 기본적인 가정과 다양한 군사력 운용을 위한 전략적 사고에 있어 해양적 지리조건과 해양전략적 고려가 핵심이 되므로 이러한 전략환경의 변화는 결국 전략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기존에는 ‘한반도 지상’이 핵심전장이 되었던 반면, 미래 또는 통일 이후의 핵심적 합동전장은 한반도 인근 해상이 지리적 중심이 된다. 전장운용 핵심개념은 휴전선 일대의 정적(靜的)·대치적·전력배치와 선형적(linear) 전선개념, 육상공간 점령과 통제가 기반이 되던 양상에서 한반도 밖

28) Terry Terriff and Theo Farrell, "Military Change in the New Millennium," in id. eds., *The Source of Military Change : Culture, Politics, Technology* (London : Lynne Rienner Publishers, 2002), pp.268-270.

으로부터의 위협이 한반도에 다다르지 않도록 조기에 예방·억제·제거하는데 주안을 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해양공간 통제형 개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된다.

국가안보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급한 안보상황은 독도·이어도 또는 센카쿠 열도 내지 대만해협에서의 관련국 간 분쟁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리공간에서 우리에게 위협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 우리의 전략적 대응은 해군력의 규모와 운용방식을 기반으로 구상된다. 한반도의 해양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전 육지를 포함하여 동북아 림랜드(Rimland)²⁹⁾에서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즉, 동·서·남해에서 전략적 이점을 창출할 수 있는 해군력을 운용함으로써 중국 동부와 만주 및 시베리아 동부 일대, 캄차카 반도와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극동 일대, 전 일본 및 서태평양 동안에서 한반도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게 된다.

합동전장 주공간의 변화는 합동성의 중심에 있어 변화를 초래하여 해군이 육군과 공군에 기여하는 방향의 합동성뿐 아니라 육군과 공군이 해군에 기여할 수 있는 합동성 측면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로 인해, 타군의 전력증강에 있어서도 주요 전력들이 해양전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전력건설 우선순위 배분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공군의 경우, 해상에서 주변국과의 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한시적인 해양우세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전력인 공중조기경보기와 수직이착륙 기능을 갖춘 전투기, 공중급유기가 다른 어떤 전력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육군의 경우에는 해상에서 적의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다단계 다층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유용한 탄도미사일방어체계와 지대함 미사일을 비롯한 정밀유도무기에 전력증강의 우선순위가 높게 부여될 개연성이 증가한다.

아울러, 국가 군사전략 수립에서 해군이 핵심위치를 수행하게 되면 ‘점유·대치·국가총력전’의 형태의 전쟁에서 비로소 ‘통제·공간활용·현장우세 및 단기 속전속결’의 미래전 양상에 부합한 전략수립이 가속화된다. 이러한 해양으로의 주전장 변화는 주변국과의 동맹 등 군사전략적 관계 속에서 한국군의 역할과 기능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한국군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있어 현저한 규모의

29) Rimland는 저명한 미국의 지정학자인 스파이크만(Spykman)이 세계의 지정학적 핵심지대로 제시한 유라시아와 서유럽의 연안지대다. 그는 림랜드 일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다. Nicolas J. Spykman, *The Geography of Peace*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44), pp.19-23.

지상군 전력을 제공하는 역할이 감소하게 되므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군사 전략 수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연합훈련 등에 있어서도 점령 중심의 대규모 육군 위주 훈련이 아니라 한-미, 한-일 간 또는 다자간 해·공군 위주의 훈련이 보다 다변화되고 활성화된다. 주전장의 변화에 따라 DOTMLPF³⁰⁾로 요약되는 합동전투발전체계에서 개선과 발전의 동력이 상당부분 해군에서 제공되고 합동전투발전체계 발전에 대한 해군의 핵심적 역할이 요구된다. 한편, 네트워크 중심환경(NCOE : Net-Centric Operational Environment)에서 감시-결정-타격 체계의 핵심노드(key nodes)가 해군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해양으로의 주전장의 변화는 타군과 비교하여 국제 군사협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해군이 한국의 군사전략을 주도하는 지위로 격상시게 됨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 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해군들과 교류협력이 촉진된다. 이에 따라 전면전 뿐 아니라 국지분쟁, 군사·비군사 위협에 대해 해양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해군 간 상호 이익의 토대를 발굴하여 이를 확장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 분야가 증가하고 교류와 소통을 통해 전략적 불안정성을 줄이는 한편 국가 간 위협 감소와 신뢰구축의 토대를 강화하게 된다.

V. 미래 해군력 발전방향

미래 우리 해군의 발전방향은 해군력 건설과 해군력 운용 측면에서 살펴보자. 해군력 건설은 양병차원의 해군력이고 해군력 운용은 용병차원의 해군력이다. 전력건설은 전략개념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략개념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므로 전략개념을 통해 방향을 제공받는다. 구체적인 전력은 해군력 운용에 대한 거시적 계획과 밑그림을 통해 획득되어지며 획득되어진 전력은 다시 해군력 운용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합동전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해군력을 어떻게 건설하고 운용할 것인가. 물론 일반적인 경우, 전략개념에 따라 전력건설이 이루어지므로 전략개념을 먼저 논의할 수도 있겠으

30) 선진국의 합동개념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미군에 의해 정착된 전투발전 7대 요소로 교리(Doctrine), 조직(Organization), 훈련(Training), 물자(Material), 리더십(Leadership), 인력(Personnel), 시설(Facility)를 약칭함.

나 실제 구체적인 실행으로서의 전략은 전력을 먼저 확보하고 확보된 전력을 운용하는 시차적 순서로 구현되므로 여기에서는 해군력 건설방향을 먼저 짚어 보고 건설된 해군력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논의하는 순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1. 해군력 건설 방향

미래의 해군력 건설에 있어 핵심은 전략적 이점 창출에 주안을 두고 전력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전략개념은 반드시 요망하는 전략적 효과를 지향해야 하며 전략적 효과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 전략적 이점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가 될 때 비로소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다면 미래 우리 해군은 북한과 주변국 위협 그리고 비군사·초국가 위협에 대해 가져야 할 전략적 이점은 무엇일까. 해군에 의해 창출되어야 하는 전략적 이점은 다양한 위협들에 대한 상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전략적 우세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달성 가능하다.

전략적 우세는 위협 또는 적 대비 아측의 강점이 최대화되고 약점은 최소화되는 한편 적·위협이 강점이 최소화되고 약점은 최대화되는 방향의 노력을 요구한다. 이는 반드시 적보다 질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거나 적·위협과 대칭적인 전력·전략을 구비토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경우 비록 상대와 비교해서 현저한 전력 열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전략·작전적 계획과 전술적 운용을 통해 순간적이고 국지적인 전력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 또는 군사력 운용의 순차적(sequential) 또는 누적적(accumulative) 운용이 결국 상대에게 더 많은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전략적 환경이 점차 아측에 유리하게 조성되는 환경으로 유도할 경우에도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우세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³¹⁾

전통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아측의 강점이 대칭적 또는 비대칭적 수단과 방법으로 적의 강점을 지향함으로써 필요시 적의 상대적 강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공세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진다. 한편, 적과 위협이 분명하고 고정적인 경우라면 아측의 강점은 면밀한 계획과 철

31) Radm. J. C. Wylie, *Military Strategy : A General Theory of Power Control* (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89), pp.22-27.

저한 집행을 통해 적의 약점을 지향토록 전략을 수립하고 전력을 건설함으로써 현저한 전력 열세 상황을 극복할 계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현되는 전략적 이점은 아축 대비 상대적으로 월등한 전력을 보유한 상대가 아축의 핵심 국가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신뢰성 있는 억제력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방법은 대개 열세한 국가가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추구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아축의 약점에 대한 전략적 관리도 필요한 바 이러한 약점들이 적의 강점에 의해 적의 전략적 이점을 창출하도록 기여하지 못하게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방법은 거의 대부분 방어지향적이며 수동적인 군사적 운용양상을 보인다. 비전통적 위협에 대해서는 보유한 해군력 수단을 통해 각각의 위협이 발생하기 이전단계, 최초발생단계, 확산단계, 방어단계, 제거단계의 각 상황별로 위협이 발생하는 해역의 위치를 고려하여 최적의 전력이 투입 및 운용될 수 있을 때 전략적 이점 창출이 가능하다.

해군이 해양에서의 다양한 위협들에 대해 전략적 이점을 달성하는 데 있어 선결과제는 전력건설의 전체적 방향이 균형적 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적인 함대라 함은 함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전력의 유형과 양적·질적 역량이 전체적으로 함대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군은 육군, 공군과 달리 평시부터 위기, 전시에 이르기까지 상황적 운용범위와 해양에서(at sea), 해양으로부터(from the sea), 육지로까지(landward) 그 지리적 활동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폭넓은 해군력 운용 상황에서 해군력을 활용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유형의 전력이 요구된다.

균형성이 갖추어진 함대는 이러한 다양한 전력들을 최적의 방법으로 구성해 위협에 대해 요망하는 전략적 효과를 창출 가능한 맞춤형 전력을 구비토록 함으로써 정치적 필요에 부합한 최적의 군사적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를 상시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특정 유형의 수단에 편중된 전력건설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수단이 골고루 발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첨단 이지스함과 대공 호위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해 작전지속능력에 핵심적인 군수지원함의 척수와 규모가 이러한 함대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시기적절하게 병행적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면 첨단 전력의 실제적인 전투력 발휘가 매우 어렵게 된다.

균형적 전력구비를 혹자는 모든 종류의 전력을 비슷한 숫자로 보유하는 ‘절대적 균형(absolute balance)’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해군력의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균형(relative balance)’이 매우 중요하다.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과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해군력 수단을 고려했을 때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형태의 함대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어떤 해군에게는 상당수의 소해함과 고속정을 보유하는 것이 균형 해군을 위한 요건이 될 수 있는 반면, 어떤 해군에게는 소수의 대형 전투함과 군수지원함을 보유하는 것이 균형해군의 필요조건이 될 수도 있다.

균형성을 갖춘 함대를 건설하는 데 있어 ‘균형’의 기능적 요소는 첫째, 전장 영역의 균형, 둘째, 임무와 역할의 균형, 셋째, 수단 유형간의 균형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전장 영역의 균형은 해군력의 수상, 수중, 항공 전력의 안정성 있는 조합을 의미한다. 둘째, 임무의 균형은 공격과 방어를 위한 수단의 균형, 평시와 전시 임무의 균형, 군사위협과 비군사 위협 대응수단의 균형, 북한 위협과 기타 잠재적 위협 대응수단의 균형이 고려될 수 있다. 셋째, 수단 유형간의 균형은 해전수행의 기능적 요소인 대수상전, 대잠전, 대공전, 상륙전, 기뢰전, 구조전, 특수전, 전자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함정, 항공기 등 수단들의 균형을 의미한다.

미래 우리해군은 운용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임무영역은 군사위협뿐 아니라 점증하는 비군사 위협에 대한 대응도 비중이 증가되며, 국가의 직접적 이익 뿐 아니라 유엔(UN) 평화유지 활동 등 국제평화와 해양협력에도 우리의 국력과 국위에 걸맞은 건설적 기여가 요구되므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 가능한 함대를 구성할 수 있는 균형적인 전력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 우리 해군이 당면할 다양한 위협에 대해 전략적 이점을 달성할 수 있는 균형성을 갖춘 해군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실로 방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중 향후 해군력 건설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선별하여 건설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기동함대 건설과 해역함대와의 기능분담

미래 한국해군의 전략개념 수립과 해군력 운용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해역함대와 기동함대의 역할 구분과 이 두 유형의 함대를 운용하는 방식을 정립하는 데 있다. 향후 2030년 이후까지 점차 기동함대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

상되므로 과연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는 해역함대와 구별하여 어떠한 차별적 기능과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 한국해군의 기동함대 운용여건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고찰하여 한국적 기동함대 운용개념을 발전·정착해야 할 것이다.

미래 우리가 처할 해양 위협 주체와 양상이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미래 한국해군의 핵심축인 해역함대와 기동함대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차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위협이 현저할 때에는 주로 해역함대 위주의 해상작전이 수행되다가 북한 위협이 점차 감소하게 될 경우 기동함대의 역할이 증가하여 해역함대와 비중의 균형을 이루다 북한 위협이 거의 소멸될 즈음에는 기동함대의 비중이 지배적인 형태로 함대 운용이 변모해야 할 것이다. 기동함대와 해역함대의 역할 분담에 함대 배치를 위한 주요 작전기지 역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나. 미래 한국해군 핵심전력 : 한국형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대두되어 왔다. 작금의 상황은 일본의 이즈모급 항모형구축함 확보, 중국의 랴오닝을 이은 국산 항모 건조, 인도의 비크란트 국산항모 건조, 일본 이즈모급 1척 추가건조(총 3척), 호주마저 캔버라급 항모형 상륙함을 보유하고 있어 바야흐로 역내 주요국 모두가 크고 작은 항모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30년 직후의 모습을 그려보자. 우리 한반도가 중심에 위치한 서태평양에서 미국은 5~6개의 항모전투단을 운용하게 되고 중국은 3~4개의 항모전투단을 확보하게 된다. 일본은 항모형 구축함을 최소 5척을 보유하게 되고 항모에 탑재할 전투기 F-35B도 확보하게 된다. 러시아는 2~4개의 항모전투단을 운용하며 인도도 3~4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한다.³²⁾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우리 해군은 역내 주요국이 모두 가세한 항공모함 경쟁에서 역내 유일한 ‘비항모국’이 되는 것이 국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전략적 선택인가. 국가생존의 사활적인 통로가 해상교통로인 해양국가로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지킬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만약 항모를

32) 러시아는 2030년부터 미국의 제럴드 포드 급과 같은 규모의 항모인 10만톤급 슈퍼항모를 4척 획득할 계획이라고 최근 러시아의 크리로프 연구센터(Krylov Research Scientific Center)가 밝힌 바 있다.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어떤 유형과 규모의 항모가 적합한 것인가. 이와 같은 전략적 고려는 항모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본격적이고 심도깊에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모 외에도 한국해군의 주력함인 이지스 구축함은 미래에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지스 구축함의 일반적 기능은 구역대공방어다. 1990년대의 초기 이지스함에는 주로 해상에서 전면전을 대비하여 대함미사일, 적 전투기, 폭격기 등의 집중 공격으로부터 함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공표적과의 교전능력 확보가 중심이었다. 그러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핵무기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체계의 중요한 수단으로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³³⁾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미사일 위협에 따라 이지스구축함이 지닌 성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있는 전력건설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군사전략은 우리의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 Korean Area Missile Defense, 이후 KAMD로 표기)를 위해 다단계 방어가 아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 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와 ‘개량형 패트리엇(PAC-3 : Patriot Advanced Capability-3, 이후 PAC-3로 표기)’를 근간으로 하는 종말단계 다층방어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최첨단 성능을 자랑하는 우리의 이지스구축함이 가진 능력을 고려하면 종말단계 다층방어보다 장기적으로는 스탠더드 미사일(SM-3 : Standard Missile-3, 이후 SM-3로 표기)을 활용한 다단계 방어가 한반도의 전략환경에 더욱 유용하며 기존 확보된 전력 간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SM-3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이지스함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해상 뿐 아니라 지상 배치형 이지스 체계와 SM-3도 병행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 킬체인(Kill Chain : 이후 Kill Chain으로 표기) 역시 고도의 기동성과 장거리 정밀타격이라는 화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해상 플랫폼이 주는 이점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또한 잠대지(潛對地), 함대지(艦對地) 정밀타격 순항미사일을 활용한 전방위 Kill

33) Till(2004), pp.221-222.

Chain 구축과 다양한 무인 무기체계를 포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다. 비대칭적 강점 창출을 위한 약자의 전력 : 잠수함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국가로서 가장 도전되는 상황은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보다 주변국의 국력과 군사력이 현저한 우세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 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주변국과의 마찰과 갈등, 비군사 위협 등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려해야 할 위협 스펙트럼의 양상과 폭이 매우 광범위하다. 게다가, 주변국 대비 열세한 국력으로 인해 무한 군비증장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전력을 획득, 운영하기 위해 우리여건에 최적화된 전략개념을 창출해야 한다. 결국, 주변국 대비 비대칭적 이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개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은 비대칭적인 전략개념을 수립(전략의 비대칭성)하고 비대칭적인 전력(수단의 비대칭성)을 보유하며 이러한 전력을 비대칭적인 방법으로 운용(방법의 비대칭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변국 대비 비대칭적인 군사력을 운용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 주변국 대비 열세한 국방비, 이에 따른 전력차(capability gap)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같은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상대에게 보다 위협적이며 상대가 보다 취약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변국들이 작금의 상황에서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첨단 구축함 등을 위주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들 함정이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는 것이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주변국 전력에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체계는 현재로서는 잠수함과 초음속대함미사일이다.

특히 잠수함은 수상함이 탐지하기 어려운데다 적 영해 깊숙한 곳까지 접근하여 항만을 봉쇄할 수도 있고, 함대지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등을 사용하여 기습 정밀타격이나 대량폭격도 가능할 뿐 아니라 소형 잠수정 등을 탑재하는 등 특수전도 지원할 수 있으므로 그 활용성이 대단히 높다. 한 척의 잠수함이 창출하는 군사적 대안의 범위와 작전적 유용성, 이러한 잠수함을 공세적으로 운용할 때 얻게 되는 상대의 심리적 불안감과 부담, 이에 따라 방어를 위해 소모해야 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잠수함은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처한 우리 해군에게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라. 무기체계의 균형성 : 첨단과 일반 무기체계의 조합(High-Low Mix)

첨단 무기체계만을 맹목적으로 쫓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물론 무기체계 그 자체로는 이왕이면 보다 고가의 첨단무기일수록 좋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해군력은 결국 다양한 무기체계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어떠한 개별적인 전력들을 통해 총체적인 전력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첨단 고가무기만을 지향하는 사고는 위험할 수 있다. 무기체계는 단지 전략을 구현하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 전략 구현은 반드시 첨단 무기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무기가 첨단화 될수록 그리고 무기체계가 고가일수록 꼭 그만큼의 작전성공 가능성과 전략 구현을 위한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평시·위기·전시의 다양한 위협과 적에 대응하고 전시에 다양한 상황의 크고 작은 전투를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형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필요하다. 때로는 아주 값싸고 작은 무기체계 다수가 필요한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소수의 고가 첨단 무기체계가 요구될 때도 있다.

과학기술에 맹종하고 첨단무기를 맹신하는 경향은 무기체계 확보에서 고가 무기체계에 대한 저가 무기체계의 유용성을 간과하게 할 우려가 있다. 다양한 군사목표와 군사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바람직한 조건은 고성능과 저성능(high·low profile)을 갖춘 무기체계를 골고루 구비하는 것이다. 일반 또는 저성능을 갖춘 무기체계를 투입해서도 충분히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데 적당한 저가 무기체계가 없을 경우 고가의 첨단무기를 투입해야만 한다.

이때, 임무와 능력의 비대칭성으로 작전수행 간 취약성이 증대하여 작전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작전실패에서 오는 물리적 피해와 그 부정적 파급효과가 증대한다.³⁴⁾ 이렇게 첨단무기와 일상형 저가 무기를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전쟁과 작전수행에서 군사적 대안의 폭을 넓혀 다양한 전술적 선택을 가능케 한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전쟁과 국지전에서 승리와 성공의 개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미래전 양상이 재래전, 비정규전, 사이버전 및 전자전 등 다양한 유형이 혼재된 하이브리드(hybrid) 전쟁의 양상을 띠므로 고성능 무기체계와 저성능 무기체계의 혼합 운용으로 미래전 양상에 적합한 전쟁수행 방식을 발전시

34) 상징적인 예로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현장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저렴한 '머구리'로 불리는 수면산소 공급형 잠수방식이 매우 유용하였다. "구식장비 머구리, 이번에도 효자," YTN, 2014년 4월 18일.

키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복합운용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³⁵⁾ 아울러, 무기체계의 복합 운용에서 나오는 시너지를 고려하면 고가 무기 체계 간 대칭적인 운용보다는 미 이지스구축함 ‘콜(Cole)’의 피습 교훈에서 보듯, 고가의 첨단무기와 저가의 일반 무기를 병행하는 비대칭적 조합과 운용에서 보다 높은 작전적 효율성과 공고한 전술적 시너지가 창출될 때가 많다.³⁶⁾

앞서 언급한 무기체계의 질적 균형성 측면에서 고려된 사항들은 해군전력에서 플랫폼의 양적 규모도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소수의 첨단 무기체계가 갖는 작전적·전술적 유용성뿐 아니라 다수의 저가 무기체계가 갖는 유용성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란체스터(Lanchester), 오시포프(Osipov) 등이 제시한 양적 우세의 법칙은 수적으로 100척과 75척을 보유한 양측이 교전 시 단위별 동일한 전투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세한 측에서는 이론상 25척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66척이 살아남는다.³⁷⁾ 화력중심의 현대전 원리에 보다 부합한 이 계산에 따르면 2의 화력을 갖춘 1척의 함정보다 1의 화력을 갖춘 2척의 함정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대 해전은 화력이 지배하며 해양은 ‘공세’ 전력적 우세를 제공하는 공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비단 화력의 집중뿐 아니라 기본 3직제 개념의 함정운용 주기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의 특성 상 함대 운용에 제한을 주지 않기 위해 유형별 최소 함정척수가 상시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미래 해군력 건설에서 무기체계의 질적 수준뿐 아니라 전반적인 양의 규모도 함께 고려하여 우리해군에게 부합하는 최적화된 수량의 수상, 수중, 항공 플랫폼들이 구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 합동참모본부, 『미래 합동작전기본개념서 : 2021 ~ 2028』(합동참모본부 : 국군인쇄창, 2014), pp.36-37.

36) 2000년 10월 12일, 예멘의 아덴항에 정박하고 있던 세계최첨단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USS Cole 이 항내에서 소형보트로 무장한 폭탄테러리스트에 의해 피격당하여 19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당했으며 주요 장비가 파손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미 해군은 고가치함정(HVU : High Value Unit) 항만정박 시 경계를 위해 경계부대의 협동작전을 발전시켰다.

37) Frederick W. Lanchester, "Mathematics in Warfare," in James R. Newman ed., *The World of Mathematics*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1956), pp.35-39. M. Osipov, "The Influence of Numerical Strength of Engaged Sides on Their Casualties," *Military Collection*, No. 6(June 1915), pp.22-25. Capt. Wayne p.Hughes Jr., *Fleet Tactics and Coastal Combat* (2nd Ed.) (Naval Institute Press : Annapolis, MD, 2000), pp.254-257에서 재인용.

2. 해군력 운용 방향

해군력 운용은 크게 강압적 운용과 협력적 운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강압적 운용(coercive operation)은 전쟁억제와 위기대응, 전쟁수행 등 전통적인 방법의 군사적 역할이 수행되는 방식이다. 해군력의 강압적 운용은 주로 해상결전이나 해양통제 또는 해양거부, 통상파괴와 항만봉쇄, 공세적 해양현시나 평시 포함외교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해군력을 강압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군사력 요소는 ‘화력(firepower)’과 ‘기동(maneuver)’이다. 거의 상수(常數)가 되다시피 한 북한의 도발위협 속에 감추어진 도발시기, 방법, 양상의 변수(變數)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 해군력을 강압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전면전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군력을 통해 어떻게 북한의 전쟁야욕을 억제할 것인가는 평시 해군력 운용의 요체가 된다.

이에, 억제전략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의 억제전략에 보다 주안을 두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재래식 억제의 대표적 방식으로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와 보복적 억제(deterrence by retaliation)를 고려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식은 거부적 억제와 보복적 억제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억제달성의 안전장치를 이중으로 구비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가 아측보다 열세에 있거나 서로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즉, 우리가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전쟁 또는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구비하는 Kill Chain은 적이 실제로 도발할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보복한다는 개념에서 적극적 의미의 보복적 억제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KAMD는 우리가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할 때 적의 도발야욕을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부적 억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측이 상대보다 현저한 열세에 처할 경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이상 재래식 무기로서 거부적 억제와 보복적 억제를 모두 달성하기는 가용재원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이 경우, 보복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 중 어느 하나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도발 또는 공격 의지를 성공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실제 도발을 감행했을 때 도발로 인한 성공보다 도발을 통해 얻게 되는 피해가 훨씬 클 수 있도록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만약, 거부적 억제만을 구비하게 되면 적이 비록 도발을 감행해도 아측이

성공적으로 방어를 실행할 뿐 방어 후 구체적인 피해를 입힐 반격을 가하지 않게 되므로 지극히 방어지향적인 군사적 대안만을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보복적 억제는 적의 어떠한 무력사용에도 곧바로 보복이라는 매우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통해 적대국에 현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공세적 성향을 갖는 방어전략을 구현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에, 만약 우리보다 현저히 우세한 상대를 고려한다면 거부적 억제보다는 보복적 억제가 전략이 지향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우세한 환경과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기도 한다.³⁸⁾

한편, 억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전면전 또는 국지분쟁에서 군사력 운용 개념으로 전쟁전략 내지는 실전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에 대해서는 해군력을 통해 초전부터 해양통제를 달성하여 세장형(細長形) 전장환경에서 우세한 해상 첨단무기를 활용한 전력을 공중과 육상에 투사함으로써 전쟁의 조기 종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보다 우세한 전력을 가진 상대와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열세한 전력을 통해서 현존함대, 위협함대, 해양거부, 국지우세 등 다양한 군사적 대안이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³⁹⁾ 미래 해군의 군사력 운용방향은 앞서 언급한 억제전략과 전쟁전략을 통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군사력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강압적 방식의 해군력 운용뿐 아니라 해군력의 협력적 운용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평시의 초국가·비군사 위협에는 해군력의 강압적 사용보다는 협력적 사용이 더욱 현저하며 이를 통해 평화가 정착되고 신뢰가 강화된다. 미래 해양안보를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전략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미래 해양력의 운용방식도 진화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협력적 해양전략’을 통해 보듯 ‘글로벌코먼즈(global commons)’⁴⁰⁾의 대표적 공간인 해양에서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해양협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38) Luttwak(1987), 197-202.

39) Hughes(2000), pp.254-257.

40) ‘글로벌코먼즈’란 우주공간이나 사이버공간, 공해·공중·심해와 같이 특정국가에 배타적으로 귀속되지 않고 세계 어느 국가든지 다른 국가의 방해받지 않고 사용·활용이 가능한 국제적 공용 공간이자 자산이다. 클리블랜드의 1990년 저서와 미래학의 대표적 저널인 *The Futurist*에 1993년 수록되면서 점차 널리 회자되기 시작했다. Harlan Cleveland, *The Global Commons* (Maryland : The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0); “The Global Commons,” *The Futurist* (May-June 1993), pp.9-13. 미 국방부 전략문서에는 2008년 『국방전략서』에 본격적으로 등장(3회) 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패권국가의 세계관과 인식이 반영된 핵심적 용어다.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Defense Strategy*, June 2008.

강압적 운용이 위협을 직접적인 군사력 수단으로 억제하거나 제압하려는 데 주안을 둔다면 협력적 운용은 미래의 잠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데 보다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협력적 방식에 따라 운용된 해군력은 다양한 협력활동에 주안을 둔다. 해군력은 육·공군력과 달리 군사력의 강압적 운용 외에도 이 협력적 운용에서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국내수준에서는 미국의 ‘국가함대(National Fleet)’ 정책⁴¹⁾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듯 해양이라는 동일한 지리적 환경을 터전으로 삼는 국가기관 및 단체 간 광범위한 협력이 진행된다.

또한 해양을 매개로 해양으로부터, 해양에서 그리고 해양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적시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의 해양력과 지상력 그리고 항공력 간에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국내차원의 협력을 넘어 국가 간, 또는 지역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해양에 국가적 번영과 안보의 운명이 걸려 있는 해양국가들과 자연스럽게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협력적 방식의 해군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면 타국 해군과의 협력을 통해 함정척수 등 양적 불충분성에서 기인한 안보 취약점이 상당부분 상쇄될 수도 있다.⁴²⁾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안보를 위해 범 지구적 협력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 우리의 해군력 운용방식은 이러한 추세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북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세계의 최강국들이 모여 있어 우리는 취약성(vulnerability)과 민감성(sensitivity)이 극대화되는 지정학적 여건에 있다. 이러한 전략환경을 직시하여 역내 안보상황이 견잡을 수 없는 무한 군비경쟁 국면에 돌입하지 않도록 동북아에서 해양협력을 위한 해양 신뢰구축(MCBM : Maritime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역내 해양안보 질서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1)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간 진행되어 온 200여년간의 긴밀한 협력은 1998년 National Fleet 라는 정책성명서에 공동서명함으로써 상호호혜적인 협력적 관행이 공식화·제도화되었고 2006년, 2013년 개정되어 해군-해안경비대 간의 포괄적 협력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다. The U.S. Navy and U.S. Coast Guard, “National Fleet : A Joint Navy/Coast Guard Policy Statement,” 21 September 1998, 3 March 2006; “The National Fleet : A Joint United States Navy and United States Coast Guard Policy Statement,” October 2013.

42) 미국은 1989년부터 2014년까지 불과 25년만에 주요 함정전력이 566척에서 289척으로 거의 절반 가량 감소했으나 이러한 함정 척수상 제한을 우방국과의 ‘협력적 전략’으로 상쇄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U.S. Navy, Marine Corps, and Coast Guard,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 Forward, Engaged, Ready*, March 2015.

군사력 운용의 상반된 방식으로 보이는 협력적 운용과 강압적 운용은 상호 병행적으로 운용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 걸맞은 전략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도의 외교적 수완과 단합되고 효율적인 국내정치 환경, 강도 높은 국민적 의지가 요구된다. 협력적 운용을 무시한 채 강압적인 방법으로만 해군력을 운용하는 것은 순간적인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보이지 않게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반면, 협력적 운용 일변도의 해군력 운용은 협력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인식하도록 조장하여 실제 군사력 운용이 가장 절실한 위기와 전시에 상대 대비 전략적 이점을 상실케 되기 쉽다. 결국, 앞서 해군력 건설의 ‘균형성’을 통해 언급했듯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도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며 강압적 운용과 협력적 운용을 적절히 배합하여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해군력 운용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 해양전략 차원에서 한국의 미래 해양안보의 핵심은 해양위협 대응과 해양이익의 추구를 복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상황에 적합한 매우 유연하고 역동적이며 포괄적인 전략 사고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갈등과 협력 중 과연 무엇에 보다 전략적 무게중심을 둘지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전략적 사고를 요하는 중대한 과제이다. 16세기 후반 우리의 경험과 1938-39년 서유럽의 경험을 통해 보듯 갈등이 심화될 것을 대비하여 전력건설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에 협력을 위한 노선만을 강조한다면 장래의 군사충돌 상황에서 국익을 보전키 어렵다. 반대로, 20세기 초의 서유럽의 사례와 같이 평화를 위한 협력에 주안을 두어야 할 상황에서 갈등을 대비한 전력건설만을 추구할 경우 주변국과 평화공존을 깨고 불필요한 갈등관계와 불신의 상승으로 역내 안보불안감이 심화되어 도리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Ⅵ. 결론

미래에는 위협의 성격이 해양을 매개로 더욱 다양화되고 심화되며 안보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위협의 대상이 확대되고 위협의 폭이 확장되며,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동반 심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 우리의 해군력 운용영역과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반면 해군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국가예산이 더욱 제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환경에서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진취적인 해양 전략 정립이 절실한 가운데, 우리 해군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군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해양전략 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해양전략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해군전략이 어떤 개념 하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어떤 전력들을 건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폭넓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정립된 전략 개념이 군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해양전략 개념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미래 우리의 해군력 건설과 운용에서 관건은 전략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전략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는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전력을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균형적으로 건설하는 데 있다. 이렇게 건설된 해군력이 군사위협에 대하여는 상대방에 대해 위협적인 전력으로 인식되고 우리의 국익이 위협받는 순간에 우리가 공세적으로 전력을 사용하여 국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미래 우리의 해군력은 군사위협 뿐 아니라 비군사위협을 포함하는 다양하고 다변화된 위협에 대해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국가안보 중심의 해양 전략임과 동시에 평시의 국가 해상활동을 통한 국가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국가발전 중심의 해양전략이라는 두 축을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평화통화견인군, 해양주권 보호군, 해양위협 억제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발전 호위군, 범세계적 해양국익 보호군, 세계평화 기여군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기존의 육군 중심적 지상 전장공간에서 해상이 핵심이 되는 전장공간으로의 합동전장 개념 변화가 요구된다. 해군은 이러한 혁신적 변화 속에서 명실공히 합동전장에서의 핵심군이 되어 타군의 역량과 특성이 해양이라는 핵심공간에서 극대화된 형태의 전력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합리성에 의거, 고도의 유연성을 갖춘 효율적인 해군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용하기 위해 국내적인 정책적 지지와 국민적 의지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전략적 정체성이 해양성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구성되도록 전반적인 정책적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 논문 및 단행본

- 강기룡, “태풍의 한반도 위협과 대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 제7차 해양비전포럼 (2014년 7월 4일).
- 박영숙·제롬 글렌, 『유엔미래보고서 2045』 (서울 : 교보문고, 2015).
- 백선엽,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구상』 (서울 : 국방군사편연구소, 2003).

영문 논문 및 단행본

- Betts, Richard K., *Surprise Attack : Lessons for Defense Planning*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4).
- Buzan, Barry and Herring, Eric, *The Arms Dynamic in World Politics* (Boulder, CO : Lynne Rienner Publishers, 1998).
- Choong, William, *The Ties That Divide : History, Honour, and Territory in Sino-Japanese Relations* (London : Routledge, 2014).
- Clark, Bryan, *Commanding the Seas : A Plan to Reinvigorate U.S. Navy Surface Warfare*,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 2014.
- Cleveland, Harlan, *The Global Commons* (Maryland : The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0).
- Fieldhouse, Richard ed., *Security At Sea : Naval Forces and Arms Control*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Friedberg, Aaron L., *Beyond Air-Sea Battle : The Debate Over US Military Strategy in Asia* (London : Routledge, 2014).
- Gray, Colin S., *The Leverage of Sea Power : The Strategic Advantages of Navies in War* (New York : The Free Press, 1992).
- Grove, Eric, *The Future of Seapower* (London : Routledge, 1990).
- Holslag, Jonathan, *Trapped Giant : China's Military Rise* (London : Routledge, 2010).
- Hughes Jr., Wayne P., *Fleet Tactics and Coastal Combat* (2nd Ed.) (Naval Institute Press : Annapolis, MD, 2000).
- Lanchester, Frederick W., “Mathematics in Warfare,” in James R. Newman ed., *The World of Mathematics*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1956).
- Luttwak, Edward N., *Strategy : The Logic of War and Peace* (Cambridge :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 Mazo, Jeffrey, *Climate Conflict : How global warming threatens security and what to do about it* (London : Routledge, 2010).
- McDevitt, Michael, "The Republic of Korea Navy : a 'big' small navy," in eds., Michael Mulqueen, Denpraj Sanders, and Ian Speller, *Small Navies : Strategy and Policy for Small Navies in War and Peace* (Burlington : Ashgate, 2014).
- O'rourke, Ronald, "Navy Shipboard Lasers for Surface, Air, and Missile Defense :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2, 2015.
- Spykman, Nicolas J., *The Geography of Peace*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1944).
- Posen, Barry R., *Inadvertent Escalation : Conventional War and Nuclear Risks*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 Terriff, Terry and Farrell, Theo, "Military Change in the New Millennium," in id. eds., *The Source of Military Change : Culture, Politics, Technology* (London : Lynne Rienner Publishers, 2002).
- Vadm. Thomas Rowden et al., "Distributed Lethality," *Proceedings*, January 2015.
- Wylie, J. C., *Military Strategy : A General Theory of Power Control* (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89).

기타 (인터넷, 국방문서 등)

- "구식장비 머구리, 이번에도 효자," *YTN*, 2014년 4월 18일.
- 대한민국해군, 『바다로 세계로 : 사진으로 본 해군 50년사(1945~1995)』 (해군본부 : 수경문화사, 1995).
- 합동참모본부, 『미래 합동작전기본개념서 : 2021 ~ 2028』 (합동참모본부 : 국군인쇄창, 2014).
- Ministry of Defence, *British Maritime Doctrine*, Joint Doctrine Publication 0-10, August 2011.
- ReCAAP,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in Asia(January-June 2015)"(<http://www.recaap.org>) (검색일 : 2015년 7월 27일).
- The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6, 2000, 2001, 2015*.
-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Defense Strategy*, June 2008.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5* (June 2015).

The U.S. Navy and U.S. Coast Guard, “National Fleet : A Joint Navy/Coast Guard Policy Statement,” 21 September 1998, 3 March 2006; “The National Fleet : A Joint United States Navy and United States Coast Guard Policy Statement,” October 2013.

The U.S.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February 2015).

“Watch Out, America : China Might Have 415 Warships by 2030,” *The National Interest*, May 27, 2015. <http://www.nationalinterest.org> (검색일 : 2015년 6월 1일).

Abstract

The Future of Republic of Korea Navy : Toward a Korean Way of Naval Strategy

Choi Joung - Hyun*

This study is an attempt to look into the future role of the ROKN and to provide a strategic way forward with a special focus on naval strategic concept and force planning. To accomplish this goal, this research takes four sequential steps for analysis: 1) assessing the role and utility of naval power of ROKN since its foundation back in 1945; 2) forecasting features of various maritime threats to influence the security of Korea in the future directly or indirectly; 3) identifying the roles to be undertaken by future ROKN; and 4) recommending Korean way of naval force planning and the operational concept of naval power.

This study seeks to show that ROKN needs comprehensive role to better serve the nation with respect to national security, national prosperity and development, and future battle-space management. To safeguard the national security of Korea, it suggests three roles: 1) national guard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2) protector of the maritime sovereignty; and 3) suppressor to maritime threats. Three more roles are highlighted for national prosperity: 1) escort of the national economy; 2) guardian for national maritime activities; and 3) contributor to the world peace. These roles need to be closely connected with the role for the battle-space management. This paper addresses the need for a dramatic shift of the central operational domain

* Lieutenant Commander, ROK Navy, Naval Force Analysis, Test and Evaluation Group, ROK Navy HQ

from land to maritime in the future. This will eventually offer future ROKN a leading role for developing strategic concept and force planning rather than merely a supporting one.

This study finally suggests ‘balanced’ strategy both in concept development and force planning. A balanced force planning is a ‘must’ rather than an ‘option’ when considering a division of function between Task Fleets and Area Fleets, constructing cutting-edge conventional forces such as Aegis destroyer, CVs, or submarines, and the mix of high-profile platform and low-profile when composing future fleets. A ‘balance’ is also needed in operational concept. The fleet should be prepared to fulfill its missions based on two different types of force operation i.e., coercive or cooperative application of the utility of naval force. The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study are relevant today, and will b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future to achieve various political goals required by enhancing the utility of naval power.

Key Words : Maritime Strategy, Naval Power, Naval Force Development, National Security, Maritime Cooperation

논문접수: 2015년 7월 24일 | 논문심사: 2015년 7월 31일 | 게재확정: 2015년 8월 4일